

신일본 '친미-반미' 논쟁

일본학 대중 학술지 '일본비평' 창간

창간호 특집서 미·일 관계 재조명

피폭 뒤 '친미국가' 탄생 심층 탐색

[한겨레]

+ 이세영 기자 

일본학 대중 학술지 '일본비평' 창간 창간호 특집서 미·일 관계 재조명 피폭 뒤 '친미국가' 탄생 심층 탐색

‘대중과의 소통’을 표방하는 일본학 대중 학술지가 나왔다.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도서출판 그린비와 함께 펴내는 반년간 <일본비평>이다. “일본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그 성과를 대중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가 ‘맹목적인 적대나 동경’ 또는 ‘선정적인 가십’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게 연구소가 밝힌 ‘창간의 변’이다.

편집장 윤상인 한양대 교수는 “일본은 21세기 한국인들이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라며 “일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연구는 인접 학문에서도 응용 가능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인의 삶과 현실을 깊고 넓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유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비평>의 지면은 기획특집과 연구논단, 서평, 강연록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획특집과 서평이다. 이 꼭지들은 일본의 국가와 사회,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현재적 관심을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게 편집진의 설명이다.

창간호의 특집 주제는 ‘현대 일본 사회의 형성과 미국’이다. 1853년의 개항에서 1945년 패전에 따른 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근대 일본의 경로를 결정지은 두 번의 체제 교체가 모두 미국의 입회 아래 이뤄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미국이란 프리즘을 통해 오늘날 일본의 국가 원리와 일본인의 정신적 심층을 탐색했다. 권혁태 성공회대 교수가 만화가 나카자와 게이지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일본인들이 원폭 가해책임에 대한 추궁을 포기하고 ‘친미국가’ 일본을 탄생시키면서 풍요와 평화를 누리게 됐는지를 규명한다면, 박진우 숙명여대 교수는 미군정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존속하게 된 천황제가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과 대외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한다. 조관자 일본 주부대 교수는 요시미 순야의 <왜 다시 친미냐




<일본비평>

반미냐>에 대한 서평을 통해 ‘반미=진보’ ‘친미=보수’라는 구도가 왜 일본에선 타당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면서 일본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지닌 의미의 중층성을 드러낸다.

<일본비평> 편집위원에는 박진우(숙명여대)·박규태(한양대)·장인성(서울대)·정진성(방송대) 교수 등 국내의 중견 일본학자 7명이, 편집 자문위원으로는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사카이 나오키 미국 코넬대 교수 등 양국의 원로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세영 기자

기사등록 : 2009-09-10 오후 06:21:30 | 기사수정 : 2009-09-10 오후 07:10:11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트하기**